

동네 책방에 작가가 온다

김해시, 작가나들이 운영
11일 가야서점 남민 강연

김해시는 제5회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앞두고 지역 내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동네책방과 북 카페에서 작가를 만나는 ‘동네책방&북 카페 작가 나들이’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동네책방과 함께 지역 독서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는 독립책방과 북 카페 2개소가 함께한다.

오는 11일 오후 7시 가야서점(인제대점)에서 인문여행가 남민의 강연을 시작으로 8월 25일까지 총 6명의 작가가 동네책방과 북 카페를 찾는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시 통

합도서관 누리집(lib.gimha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인재육성지원과(055-330-6688)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동네책방 활성화와 지역 문화 융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김해시 동네책방’을 선정하고 도서관과 공공기관에서 순차적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 제공에 힘쓰고 있다.

또한 책방지도를 제작·배부했으며 연계사업을 통해 동네 책방이 문화 공간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송지나 기자

jeong1233@naver.com

가족과 함께 도서관에서 ‘1박 2일’

김해 기적의 도서관 캠프

김해 기적의 도서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에서 1박 2일 캠프’를 개최한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한 이번 캠프는 ‘아트 캠핑’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이 진행된다.

참가 가족은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놀이로 친해지는 우리 가족’, 가족이 힘을 이뤄 행성 조명을 만드는 ‘우주를 즐게’, 목재문화체험관에서 학예사가 들려주는 나무 이야기와 목공체험을 해보는 ‘나무의 변신’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김용락 기자 rock@kndaily.com

연합뉴스

청소년 인문학 읽기대회 참가팀 발표

· 기사입력 2018/05/02 13:47 송고

(김해=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 선포한 대한민국 '책의 도시' 김해시가 오는 8월 개최될 '제10회 청소년 인문학 읽기 전국대회'에 참가할 44개 팀 22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김해 지역에선 대청고·김해고·김해여고·울하고 등 4개교 독서동아리가 최종 명단에 들었다.

또 부산·전남 각 3팀, 제주·강원 각 1팀 등 전국 독서동아리들이 고루 선정됐다.

김해시는 최종 참가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내달 8일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본 대회는 10회째를 맞아 행사 기간을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늘리고 저자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 힐링 공연, 김해 투어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경남뉴스투데이

전국 최대 비경쟁독서토론, 대한민국 '책의 도시'김해에서!

'제10회 청소년인문학읽기전국대회'전국 44개팀 참가

(김해=경남뉴스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선포한 대한민국 '책의 도시' 김해시는 오는 8월 개최될 '제10회 청소년인문학읽기전국대회'에 참가할 44개팀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24일까지 전국 청소년 독서 동아리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실무 부서에서 1차 심사를 했고, 28일 대회 운영위원 8인이 모여 2차 심사 실시, △독서활동 지속성 △참가 동기 △ 시도별 안배 등 심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4개팀 220명을 최종 확정했다.

김해 지역은 대청고, 김해고, 김해여고, 울하고 4개교의 독서동아리가 최종 참가팀 명단에 들었고, 부산, 전남 각 3팀, 제주, 강원 각 1팀 등 전국 각지의 독서 동아리들이 고루 선정됐다.

운영위원들은 심사평을 통해 "대회 참가 동기의 절실함, 평소 지속적이고 활발한 독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에 높은 점수를 줬고, 비경쟁 독서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문화 소외 지역팀은 특별히 배려하여 참가팀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최종 참가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내달 8일 지도교사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본대회는 대회 개최 10회째를 맞이해 행사 기간을 기존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늘리고, 저자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힐링 공연, 김해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